

남원 춘향제 바가지요금 'OUT'

시 '부당요금합동대응반' 운영 전매 금지, 가격·중량 정찰제 시행 적발시 형사 고발 등 엄정 대처

남원시가 봄철 축제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관광객을 향한 바가지요금 근절에 나섰다. 한 번이라도 바가지요금 논란이 일면 남원 전체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관광객이 크게 감소한다고 판단, 매년 되풀이되는 축제 바가지요금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달 30일 '요천 봄꽃 음악회'로 시작돼 오는 15일 '바래봉 절죽제', 5월10일 '제94회 춘향제' 등 1개월 남짓한 기간 크고 작은 축제가 연이어 개최됨에 따라 '축제부당요금합동대응반'을 운영, 불법영업과 바가지요금에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다.

최근 봄꽃 음악회를 겨냥해 전국을 돌며 장사하는 뜨내기 상인이 관내 사유지 내에 입점해 품바공연과 음식부스를 불법 영업하고 있어 지난 2일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렸고 무신고 영업에 대해서는 이튿날 남원경찰서에 형사 고발조치했다.

이에 처음부터 바가지요금과 불법영업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지다.

실제 지난해 춘향제에서 논란을 빚은 바가지요금 또한 뜨내기 업체로, 이들은 축제기간 체류비와 재료 보관비 등을 보전하고자 바가지요금을 받아 공분을 샀다.

올해 춘향제에는 지역 상인들에게 먹거리 부스와 농특산물·소상공인 판매 부스 126개를 직영으로 임대하고 입점권 전매를 금지하며 모든 메뉴는 가격·중량을 표시한 정찰제를 시행, 1만원 이하로 판매하기로 했다.

특히 바가지요금을 받았다가 적발되면 즉시 퇴거 조치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남원시소상공인연합회와 남원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회원들이 '부당요금 근절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남원시 제공>

시는 이와 함께 지난 4일 외식업계의 '마이더스'로 불리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와 춘향제 먹거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상생발전 협약'을 맺었다.

남원 농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과 마케팅, 홍보로 더욱 특색 있으면서 지역경제에까지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하겠다는 구상이다.

시는 외식업·숙박업·소상공인들의 부당요금 근절 동참을 유도하고 대시민 분위기 확산에도 주력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소상공인연합회와 남원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에서 '부당요금 근절 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이달 2일에는 남원시와 한국외식업중앙회

남원시지부 및 남원추어요리협회가 '친절·위생 서비스 향상 및 가격안정 협약'을 체결, 춘향제 기간 남원추어탕 가격을 1만원으로 인하하는 데 합의했다. 또 오는 18일에는 외식업 회원 200여명이 '부당요금 근절 결의 및 퍼포먼스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춘향제가 지역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올해 제94회 춘향제에는 뜨내기 업체 입점을 차단하고 지역 소상공인 입점을 유도해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들과 협력해 100만 관광객 유치 및 바가지요금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남원 웹툰 '향단면' 카카오페이지서 본다

1년간 매주 수요일 무료 공개...총 54화 분량

남원시의 창작웹툰 '향단면'이 지난 5일부터 국내 웹툰 플랫폼 '카카오페이지'에 정식 연재를 시작했다. 총 54화의 분량으로 1년간 매주 수요일 1화씩 무료 공개된다.

웹툰 '향단면'은 남원시의 대표적 문화자산 '춘향전'을 현대적 감성으로 재해석한 로맨스코미디 장르물로 현대의 여주인공이 우연한 사고로 춘향전 속의 '향단'에 빙의해 사또 변화도로부터 춘향을 지키고자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다.

춘향전을 배경으로 한 웹툰이 국내 최대 웹툰·웹소설 플랫폼 중 하나인 카카오페이지에 정식 연재된다는 점에서 다양한 세대에 남원을 알리고 이를 통한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로 지역관광을

유도하는 등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돼 온·오프라인에서 관광객들이 스마트한 경험과 디지털 콘텐츠로 남원을 알고 즐길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 중이다.

웹툰 '향단면'도 이 사업의 일환으로 시와 ㈜리앙애이지가 공동 추진하고 있으며 웹툰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은 지역 청소년의 장학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만든 웹툰을 플랫폼에 정식 연재한 것은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새로운 도전"이라며 "웹툰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자산 확보로 지역관광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



남원시가 제작한 창작웹툰 '향단면' 표지.

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고창 고인돌유적·운곡습지' 4월 생태관광지

환경부 매달 1곳 선정

고창 고인돌유적과 운곡습지가 환경부의 '4월 이달의 생태관광지'에 선정됐다.

환경부는 전국 생태관광지역 중 자연환경을 잘 갖추고 지역 관광자원 연계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 매달 1곳을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선정해 집중 홍보하고 있다.

지난 2일 환경부 관계자와 기자단 등 50여 명은 고창 고인돌·운곡습지를 찾아 직접 체험하고 현장 사진을 담아 홍보활동에 들어갔다.

고창 고인돌·운곡습지 생태관광지역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고인돌과 랍사르습지로 등록된 운곡습지를 함께 탐방할 수 있는 역사·문화·생태적 가치를 동시에 지닌 곳이다.

특히 운곡습지는 1980년대 영광원자력발전소 냉각수 공급원으로 저수지가 조성되면서 30년 넘게 인간의 간섭없이 지금의 원시습지 상태로 복원됐다. 현재 수달, 삿 등 멸종위기 동물을 포함해 총 850여 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다.

한편 4월 운곡습지 일원에서는 ▲노르딕워킹 ▲뽕잎차 다도체험 ▲누에고치공예 ▲토요장터 등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생태관광 프로그램도 체험할 수 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

도시민 10명, 연말까지 정읍서 농촌 체험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입교...영농 등 적응 훈련

정읍시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새로운 가족이 입교했다. 정읍시는 구룡동에 있는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 지난 5일 입교식을 열고 도시민 10명(8세대)이 점입했다고 밝혔다.

올해 가족실습농장에는 서울 2세대, 경기 5세대, 전주에서 1세대가 입교했다. 특히 처음으로 부부가 함께 경기도 안양에서 2세대가 입교했다.

입교식은 교육생과 직원 간 상호 인사, 귀농·귀촌 정책설명, 시설 소개 등으로 진행됐다.

이번 입교생들은 오는 12월까지 가족실습농장의 투룸형 풀옵션 단독주택에서 생활하면서 기초 영농교육과 다양한 영농체험, 정착지 찾기 등의 농촌 적응훈련을 통해 정읍에 정착할 예정이다.

이용관 정읍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입교자 모두가 정읍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귀농귀촌 종합지원 플랫폼을 적극 운영하고, 다양한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 축산농 '사료구매자금' 부담 완화

연 1.8% 금리 융자 지원

정읍시가 최근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2024년 상반기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에 나선다.

지원 규모는 총 476억5900만원로 융자 100%, 금리 1.8%, 2년 거치 일시상환이 조건이다.

이 지원 자금은 신규로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하거나 기존 외상 사료대금을 상환하는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축산농가

와 법인이며 지원 축종은 한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사슴, 말, 산양(염소), 꿀벌 등이다.

시는 지난달 29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서를 받았으며 농가별 신청금액, 사육두수, 대출잔액, 지원한도 등을 검토한 후 이달 중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해 사료구매 정책자금 선정·추천통보서를 해당 농가에 발급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축산농가는 관내 농·축협 및 농협은행을 통해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금은 대출기관에서 직접 사료 공급업체로 입금된다.

/정읍=박기섭 기자 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 학교 밖 청소년 생활·학업비 지원

9~24세 다음달까지 신청

고창군이 오는 5월31일까지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적·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놓인 시각장애 청소년(9~24세)에게 생활·학업 지원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다.

대상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저소득 한부모 가족 자녀 포함) ▲비행·일탈 예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은둔형 청소년 등이며 대상

가구 중위소득 100%이하 청소년이다.

지원은 ▲생활지원 월 65만원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하 ▲검정고시·학원비 월 30만원 이하 ▲상담지원 월 30만원 이하 등이며 가장 긴급하거나 중요한 하나의 서비스를 지원한다.

다른 제도나 법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나 보호자 또는 사회복지사 등이 고창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읍·면행정복지센터나 고창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방문해 제출하면 신청하면 된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한국토지부동산(주)

전원주택 신축

매매 9억5천만원



전라남도 담양군 수북면

청소년수련관입구

■ 대지 : 979㎡ (296.14평)

■ 건물 : 323.86㎡ (98평)

(지상2층, 지하주차장포함)

상담문의 010-3733-3933